

이긴자 일대기 [8]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북으로 북으로

주님이 20살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북한군이 순식간에 쳐내려오는 바람에 주님은 피난 갈 생각을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일요일이 되어 김포읍에 있는 장로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모두 피신하여 예배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학생 신분이었지만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러하여 주님은 인민군들에게 연행되어 총살당하게 되어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이 청년은 우리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모범적인 청년이다. 조희성이를 죽이려거든 우리를 먼저 죽여라!"고 데모하는 바람에 풀려날 수 있었다.

인민군으로부터 석방되어 집에 와 있으니 주님이 유능한 청년이라는 것을 안 인민군은 무슨 대화다, 무슨 모인이다 하면서 주님에게 나와서 자기네 일에 협조하라고 채근하는 것이었다. 자주 거절하다보니 도저히 불만해서 견딜 수 없는 고로, 자전거에다 보리쌀 한 말을 싣고 김포를 떠나 서울 흑석동 하숙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하숙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가서, 인민군이 들어타치면서 주님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 "너, 조희성이지? 손들어!" 하였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골수분자였던 하숙집 주인이 인민군에게 고해바치기를, "방금 우리 집에 하숙하는 대학생이 와 있고, 그의 형이 수도국의 경찰복장을 하고 가끔 들러 동생을 만나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소"라고 했던 것이다.

주님은 두 손을 들고 흑석동 인민군 본부로 끌려갔다. 빨갱이들이 볼 때, 집집마다 전도를 하고 다니는 열렬한 예수쟁이였으며 형은 경찰관이니 그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반동이었던 것이다. 지하실로 감금한 채 어디서 구했는지 곡괭이 자루로 인정사

정없이 개패듯 죽을 때까지 매질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후 마포 형무소에 이송되었는데, 그 안에는 현직 국회의원, 경찰 간부, 대한 청년단장, 군인 등 저명인사들이 일천여 명 넘게 수감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주님이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가장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던 것이다. 매 맞은 통증으로 고생하며 마포 형무소에서 며칠 지낼 때에는 더운 7월 여름이었다.

빨갱이들은 마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천여 명의 우국지사들을 모두 죽여 없애기로 작정한 듯이, 그들은 마포 형무소에서 4, 5일을 지나는 동안 수감자들에게 쌀 한 톨,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으나 목이 타는 같증은 해소할 수 없어 밖에 있는 간수에게 "선생님!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어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하고 애원하니, 그 간수가 한다는 말이, "이 반동 아새끼가 물은 무슨 물이야? 너희들은 곧 죽을 놈들이다."고 쌀쌀하게 타박하는 것이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며칠이 지나자, 하루는 인민군들이 모두 나오라 하여 밖으로 나갔더니 철사줄로 두 손을 팽팡 묶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긴 쇠사슬로 앞사람과 뒷사람을 이어서 연결하고 일렬종대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낮에는 비행기의 폭격이 심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으스스한 소나무 숲에서 숨어 지내다가 어두워지면 북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유행가 가사 그대로 주님은 철사줄에 두 손 팽팡 묶인 채로 맨발로 절며 절며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 계속해서 의정부, 동두천, 전곡, 연천, 철원, 평강을 거쳐 신고산을 돌아 원산까지 끌려갔던 것이다. 그들은 북으로 끌고 가는 중에도 쌀 한 톨,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풀을 뜯어 먹었다.

필사의 탈출

전쟁이라는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다. 주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길목마다 죽은 시체가 즐비하게 늘려져 있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참혹하였다. 아기를 업은 어머니의 죽음은 북으로 끌려가는 포로들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어머니는 죽었는데 아기는 엄마를 부르며 눈이 붓고 목이 쉰 상태로 울고 있는 것이었다. 비행기의 기관총에 맞아 죽은 군인들의 시체, 인민군들이 무차별 학살한 양민들의 시체, 그 죽음들은 형형색색으로 주님의 마음에 부딪쳐 오는 것이었다.

사람이란 하루 이틀만 잠을 못 자게 해도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법인데, 인민군들은 원산까지 가는 한 달 반 동안 잠을 한 숨도 재워주지 않았다. 주님은 너무나 졸려 견딜 수가 없어 철사줄에 매여 얇은 잠을 자면서 걸어야만 했다. 그런데 졸면서 걷다가 걸음을 비틀거리든지 하면 때발총으로 쏘아 죽여 연결된 쇠줄에서 풀어버리는 것이었다.

주님은 나이 스무 살에 참으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으며, 인간의 탈을 쓰고 그 이가 없을 정도로 말바닥 중의 말바닥 생활을 했던 것이다. 원산에 도착하니, 인민군들은 일을 부려먹기 위하여 주먹밥을 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는 살 만했으나, 틀림없이 종래에는 죽일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므로 탈출을 생각하게 되었다. 같이 끌려간 분들이 대부분 정부의 요직에 계셨던 분과 사회 저명인사로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이지만, 주님은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신분 또한 학생이었다. 끌려간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산

주의 빨갱이 놈들이 참으로 지독하구나. 너 같은 학생이 무엇을 안다고 또 무엇을 하였다고 이토록 모질게 고통을 주어 고생을 시키다 마지막에는 죽여 없앤단 말인가? 우리들은 그래도 반공을 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제 지라나는 젊은 학생까지 무참히 죽이는 공산주의는 참으로 비인도적이요, 악질이구나." 하며 혀를 차며 탄식하는 것이었다.

무더위는 땀을 줄줄 흐르게 하고 검은 구름은 온 천지를 짓누르는데 당장이라도 소나기가 내려 피부가 벗겨질 것 같았다. 주님이



▲ 맨살로 거꾸로 매달린 채 가족체의 채찍을 맞고 또 맞으심

참고 앞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학생!" 하는 소리가 나기에 "네" 하고 대답하니, 반공 청년단장을 지냈던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의 눈빛을 보내더니 낮은 목소리로 "우리들이야 살만큼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학생이야 장래가 구만리 같지 않겠어? 그런데 여기 있다 가는 인민군이 죽이고 말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탈출을 시도해 봐.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탈출하게 나."하고 권면하는 것이었다.

주님은 "네,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탈출을 고

려하던 참인데, 때마침 반공 청년단장의 조

그때에 인민군 경비병이 호각을 불면서 모두 창고 앞으로 집합시켰다. 인민군들은 포로들에게 주먹밥 한 덩이를 주고서는 전 쟁물자 옮기는 일을 시켰다. 밀가루 포대 같은 것을 하나씩 어깨에 매어주며 고개 하나 넘어 저쪽으로 나르라는 작업이었다. 나 이 드신 어른들은 한 포대도 힘에 겨워 끄공대며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주님은 탈출을 결심하고 한 번 밀가루 포대를 메고 중간 고개를 지나 저쪽까지 운반해 보니, 그

곳에 보초 하나가 고갯마루에 서서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경비가 허술한 편이었다. 놈들은 감히 포로들이 탈출하리라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다. "이 보초 하나만 처치하면 탈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대를 메고 고개에 올라와서 그 인민군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마치고 가니, "어휴, 힘들어" 하면서 힘에 부쳐 포대를 떨어뜨리는 척하였다. 포대를 놓는 동시에 그 보초를 발길질로 힘껏 내질렀다. 주님의 발길질에 차인 보초의 아시보총이 보초의 이마를 치자 그 보초는 뒤로 넘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어렵잖아 남쪽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있는힘을 다하여 달음박질쳤다.

결국 붙잡히다

우거진 숲속을 헤치며 남쪽을 향해서 한 발이라도 멀리멀리 도망가야 산다는 생각에 월월 나르다시피 작은 소나무는 뛰어넘

으며 계속 뛰었다.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가리고 있으니 동서남북의 방향은 알 수 없고 남쪽 방향이려니 하고 열심히 뛰었다. 해가 지자 온 천지는 캄캄한 밤으로 변하여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다. 가까운 곳에서는 들짐승들이 울부짖고 길도 알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남쪽을 향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간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는 아직 군에 입대하지 않았던 때라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점심 저녁도 굶고 계속 달리는 주님은 몹시 시정함을 느꼈고 목이 타서 도랑물에 얹드려 물로 배를 채우고 다시 뛰었다. 그런데 민가의 불빛이 유혹하는 것이었다. 며칠간 무작정 도망을 쳤더니, 무척 배가 고파서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기에 있는 집에 가서 밥을 훔쳐 먹고 가야지"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동네에 접근하였다. 동네에 인적이 없으므로 가만히 민가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솥을 열어 보았지만 밥은 한 톨도 없었다. 찬장을 뒤져 보았지만 아무 것도 없고 고구마 삶은 것이 있기에 막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손들어!" 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손을 들고 뒤를 돌아보니, 붉은 완장의 내무서원(남한에선 경찰관에 해당함)들이 총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었다. 고구마는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내무서원 한의 파출소에 해당함)로 끌려갔다. 그곳은 함경남도 고원군 탄광역전이었다. 원산에서 포로 한 명이 인민군을 해치고 탈출하였다는 긴급연락을 받은 원산 근처 일백 사오십 리는 완전치 비상이 걸린 상태였는데, 주님은 그것도 모른 채 선불리 행동하다가 그만 잡히고 만 것이었다.

이긴자 일대기

상단에 이어서

인간으로서의 차마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

주님을 잡아서 밤새도록 잔인하게 고문을 가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들은 주님에게 재미로 고통을 가하였으며 사람의 생명을 놓고 장난 짓을 하며 희롱을 하였던 것이다. 한 달 동안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몸을 발가벗겨서 거꾸로 매달고는 가족체로 채찍질하는 것이었다. 채찍질하는 사람이 힘이 들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후려쳤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주님의 코에 고춧가루 탄 물을 집어 넣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를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혹독한 매질에 주님은 고통을 면하고자 "북한이 좋아서 북쪽으로 왔다."고 하니, 인민군들이 "이 놈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너, 보초병을 때려눕히고 도망친 놈이지." 하기에, 주님은 "그 보초가 죽었는가?"라고 되묻는 것으로 스스로 도망친 당시 지위를 실토한 셈이 되었다. 그 보초가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인을 범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자 인민군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 후로 고문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문을 한 다음 양손을 머리 뒤로 하여 묶어 놓고는 평양 신양리 형무소에 압송하였다.

주님은 한 달 넘게 밥을 굶어 빈사상태의 몸에 죽을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그 죽음의 경지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렇게 조희성 주님은 스무 살 나이에 곡괭이 자루의 매질과 매서운 채찍질을 당해야 했고 한 달 반 동안 금식의 고난을 겪어야 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조희성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으로 세우기로 예정하신 섭리에 따른 연단과정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조희성 주님을 점령하여 하나의 몸, 하나의 영이 되어, 삼위일체로 원상반복하여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갖

게 되어 잃어버렸던 에덴동산을 되찾게 되는 역사였다.

언제 사형집행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주님은 함경도 원산 북쪽의 고원 탄광촌에서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평양 서문 밖에 있는 신양리 형무소에 투옥되었는데, 거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끌려온 저명인사들이 반동분자로 취급받으며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송가는, 일본 감정이 안 익숙이라는 사람이 신사참배 강요에 불응하고 평양 형무소에 붙잡혀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사형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운명 속에서, 그 감방 안에서 지은 시를 작곡한 것이다.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로 평양 신양리 형무소에서 한 달 반 동안 감금되었을 때 똑같은 심정으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밥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씩 주는데 밥이 삶은 것에 모래를 섞어 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왕 죽을 놈들이니까 총살을 시키면 총알이 아까워, 그러니까 모래를 골라 내지 말고 그냥 먹고 맹장염이나 걸려서 췌제!" 하는 것이었다. 매끼마다 학대를 하기에, 그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대부분 다 모래째 먹고 죽어나갔다.

형무소 안에는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인한 마음을 갖고 늘 긴장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피가 썩어 열굴이 시커멓게 변해 갔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죽게끔 내버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다. 주님만은 항상 마음이 태평한 상태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에 맡긴 채 한 번도 실망이나 낙심을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환한 상태로 있을 수 있

었다. 그래서 간수들도, "이 반동 아새끼는 먹는 것도 없는데 얼굴이 좋다." 하면서 때리기도 하였다.

감방 안에서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는 주님

그 신양리 형무소에서는 한 사람이 들어가 않아도 여유 없는 작은 동방이었는데, 인민군들은 거기에 6명을 집어넣었다. 한 사람이 들어가도 딱 차는 동방에 6명을 집어넣으니 몸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쥐가 나서 한 사람씩 죽어 나가는 것이었다. 쥐가 난 곳을 주물러 주면 주물러 주는 사람의 손에 쥐가 나기 때문에, 옆 사람이 쥐가 나도 주물러 줄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항상 6명이 꼭꼭 끼인 상태로 뜨거운 여름철에 서로 살을 대고 영겨 지내야만 했다. 밥났듯이 다리도 펴지 못하고 좁아서 누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땀이 몸에서 줄줄 흐르고 목이 몹시 말랐으니 인민군들은 물도 주지 않았다.

주님은 감방 안에서 끊임없이 찬송을 불렀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리는 찬송을 컷노래로 부르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노래 곡조가 너무 좋다며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가르쳐 주어 같이 부르기도 하였다. 이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었다. 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을 컷노래로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간수가 찬송을 못 부르게 하니, 주님은 그 이후로 마음속으로 불렀다. 인민군은 가장 나이가 어린 조희성 주님을 죽이기가 아까웠던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인민군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

그 동방에 들어온 죄수는 모두 중벌로 다스려 죽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았지만, 주님만큼 매를 맞은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봐 달라"고 하면서 놈들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매를 피할 수 있었으나 주님만은 불의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기에 죽을 때까지 그 모진 매를 맞았던 것이었다. 당시 주님이 나이 스무 살에 그와 같은 연단을 받았던 것은, 장차 이긴자가 되어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0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0

믿음론: 믿음은 믿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생이다.
Theory of Faith:
Faith is not a believing heart, but eternal life, a gift from God.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8)

Salvation comes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s; it is the gift of God.

(Ephesians 2:8)

죄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다 (로마서 6:23)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God gives is eternal life (Romans 6:23)

마지막 때가 되도록 믿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누가복음 18:8)

Faith cannot be found until the end times (Luke 18:8)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17)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Romans 1:17)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로마서 3:10)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Romans 3:10)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 11:1)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Hebrews 11:1)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사람의 마음)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20)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a person's heart),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and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Matthew 17:20)*

by Alice